

"더 센 특검법 민주당 주도 본회의 통과"수사기간 늘리고 인력 확대

기간 30일 더 연장 가능 민주당 지지층 반발에 국민의힘과 합의 하루 만에 뒤집어

軍검찰·국수본 인계사건 특검 지휘권 배제 조건부 재판 중계는 여야 합의 반영

국민의힘, 특검법 개정안·권성동 체포동의안 표결 불참기로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의 수사 기간을 30일 추가로 연장하고, 수사 인원을 늘린 특검법 개정안이 11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민주당은 전날 국민의힘의 요구를 받아들여 특검법 개정안을 수정하기로 합의했지만, 하루 만에 폐기했다.

대신 이날 본회의에는 국민의힘 제안을 일부만 받아들인 새로운 수정안을 올려 통과시켰다.

민주당이 이날 본회의에 올린 최종 수정을 가한 특검법 개정안은 김건희·내란·순직해병특검법 개정안 등 3건이다.

김건희특검법과 순직해병특검법 개정안은 재석 168명 중 전원 찬성으로 각각 가결됐다. 내란특검법 개정안은 재석 165명 중 찬성 163명, 기권 2명으로 통과했다.

개정안은 3대 특검의 수사 기간과 인력을 모두 늘렸다.수사 기간은 기존 특검법보다 30일 더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법에는 특검 재량으로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한 뒤 대통령 재가를 받아 30일 추가 연장이 가능하도록 했는데, 수정안은 특검 재량 연장이 '30일씩 2회'로 늘었다.

이는 전날 여야 합의의 뒤집은 것이다.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전날 국민의힘 측 요구를 받아들여 기존 특검법에 따라 수사 기간을 정하기로 했었다.

합의 내용이 알려진 후 친여권 지지층의 반발이 빚발치자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 개의 직

전 의원총회를 열고 야당과의 합의안 대신 원래 수정안을 유지하기로 했다.

이날 본회의 문턱을 넘은 개정안은 군검찰에 대한 지휘권과 국가수사본부(국수본)로 인계된 사건에 대한 특검의 지휘권이 배제돼 있다.

특검이 기소한 사건의 재판 중계도 조건부로 허용하는 것으로 했다. 이 내용들은 전날 여야가 합의한 내용을 반영한 것이다. 이밖에 수정안에는 수사 대상 가운데 자수하거나 타인

을 고발할 경우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는 조항도 추가됐다.

민주당 문진석 원내운영수석 부대표는 본회의의 수정안 제안 설명에서 "특검 수사 기간이 끝난 후 사건을 국수본에 이첩한 후에는 특검의 수사 지휘를 배제하는 것으로 했다"며 "또 재판 중계를 허용하되, 헌법 109조 재판의 심리 비공개 규정'과 조화를 이루기 위해 재판 중계를 허용하지 않을 경우를 헌법 규정에 맞춰 수정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11일 이른바 '더 센 특검법'과 권성동 의원 체포동의안 국회 본회의 표결에 불참하기로 했다.국민의힘은 이날 본회의 직전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최수진 수석대변인이 기자들에게 전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불참은 한 두사람의 의견이 아니라 많은 의원의 의견이 모인 것이어서 당론이라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국회는 이날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3대(내란·김건희·순직해병) 특검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한다.개정안은 ▲ 특검의 수사 기간 추가 30일 연장 가능 ▲ 특검 인력 증원 ▲ 이른바 내란 재판의 녹화 중계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심규영 기자

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 노후화 대응 관련 정책토론회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안태준·권영진 의원과 공동 주최, 각계 전문가 참여

30년 이상 노후 구간 급증… ‘구간 단위 대규모 리모델링’ 정책 전환 논의

한국도로공사(사장 함진규)는 11일(목)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안태준·권영진 의원과 함께 ‘고속도로 노후화 대응관련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1990년대부터 집중 건설된 고속도로가 2030년 이후 본격 노후화되는 가운데, 기존의 사후·단편적 유지보수 방식에서 벗어나 근원적·예방적 보수방식의 ‘구간 단위 대규모 리모델링’으로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할 필요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서는 △노후 고속도로 리모델링의 필요성 및 향후과제(국토연구원) △고속도로 노후교량 리모델링 시범사업(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 리모델링 사업 추진 방안(서울시립대학교) 순으로 주제 발표가 진행됐으며, 뒤이어 국토교통부·학계·연구기관·건설업계·언론 등 전문가 패널의 토론이 이어졌다.

토론을 통해 구간 단위 리모델링의 △타당성 및 시급성 △제도적 근거 보완 △재정 지원 필요성 △



사회적 공감대 확보 △정책 추진 방안 등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안태준 의원은 “우리나라보다 먼저 고속도로 노후화를 경험한 주요 선진국들은 빠른 사회적 비용을 겪은 뒤에야 유지보수에 본격적으로 투자하기 시작했다”라며, “지금 제대로 준비하지 않으면, 미래에는 더 큰 사회적 비용과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권영진 의원은 “고속도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 국가 산업과 경제 발전을 지탱하는 핵심 기반 시설”이라며, “국민의 안전과 직

결되는 만큼 임시방편적 대응이 아닌 혁신적인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함진규 한국도로공사 사장은 “고속도로 노후화 문제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시급한 과제로 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안전과 내구성을 강화한 전면 리모델링 중심의 새로운 관리체계를 준비하고 있다”라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논의된 과제를 정부, 국회, 산업계 등과 협력해 제도와 실행으로 연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영진 기자

한국수자원공사, ‘국가 K-테스트베드’ 하반기 통합공모

9월 11일~10월 15일, 전 산업 분야 중소·벤처기업 대상 참여기업 공모



행한다.

기획재정부 주관으로 2021년 출범한 국가 K-테스트베드는 출범 이후 지금까지 총 750건의 과제를 선정해 실증을 지원해왔다. 현재 73개의 공공·민관 기관이 참여하고 있는 국가 K-테스트베드에서 한국수자원공사는 대표 운영기관으로서 사업 운영을 총괄하고 있다.

접수 기간은 9월 11일부터 10월 15일까지이며, 모집 분야는 ▲연구·개발 ▲단순 실증 ▲기술 및 제품 성능 확인 등의 세 가지 분야로 전 산업 분야의 중소·벤처기업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신청은 K-테스트베드 공식 누리집(www.ktestbed.net)에서 가능하다.

안정호 한국수자원공사 그린

인프라부문장은 “이번 공모는 혁신 기술을 가진 기업들이 공신력 있는 실증과 성능 검증을 통해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라며, “대표 운영기관으로서 유망기업의 성장을 적극 지원해 혁신 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7월 개정된 ‘혁신제품 구매운영규정’에 따라, K-테스트베드 성능확인서를 발급받은 제품은 조달청 혁신제품 지정평가 시 시범 사용 수행역량 평가가 면제된다. 이후 혁신제품으로 지정되면 지자체 및 공공기관이 경쟁 절차 없이 구매할 수 있어, 기업 판로 확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영진 기자

하이트진로, 서울 마곡에 대규모 ‘테라 맥주 페스티벌’ 열어



서울 마곡 중심가에서 가을밤을 만끽할 수 있는 대형 맥주 페스티벌이 펼쳐진다.

하이트진로(대표 김인규)가 9월 12일부터 14일까지 3일간 서울 강서구 마곡나루역

마곡나루역 7차선 도로가 축제 현장으로… 색다른 즐거움 선사

‘2025 마곡 MCT 페스티벌’ 매일 참여… 상생 경제 실현에 기여

일대에서 열리는 ‘2025 마곡 MCT 페스티벌(Magok Culture & Tech Festival)’에 참여해 ‘테라 로드 비어 페스티벌’을 진행한다고 11일 밝혔다.

행사는 ‘2025 마곡 MCT 페스티벌’ 2일차인 13일 토요일 저녁에 열린다. 특히, 서울 마곡 나루역 앞 7차선 도로 약 220m를 전면 통제하고 설치하는 메인 무대에서 펼쳐지는 ‘테라 로드 비어 페스티벌’은 시민들에게 색다른 가을 밤의 즐거움을 선사할 예정이다.

‘테라 로드 비어 페스티벌’은 오후 2시부터 참여 가능하다. 시민과 관광객들은 곳곳에 마련된 맥주 부스에서 시원한 테라 생맥주를 즐길 수 있다. 또한, 두꺼비 포토존과 테라 리얼탄산 포토존이 설치되며 웨이브레이스, 스과크레이스, 닥트게임 등 소비자 참여형 이벤트 부스도 운영된다. 18시부터 21시까지는 다이나믹듀오, 코요태, 뉴비트, 라포엠, 강소리 등 유명 아티스트들의 콘서트가 열기를 더한다.

하이트진로는 이번 ‘2025 마곡 MCT 페스티벌’이 열리는 3일 내내 지역 시민과 관광객들을 위한 테라 맥주 부스와 이벤트 부스를 운영하고, 마곡지역 상권 활성화를 통한 상생 경제 실현에 기여하고자 ‘테라 로드 비어 페스티벌’을 기획했다.

하이트진로 마케팅팀 오성택 전무는 “서울 시내 중심가에서 열리는 대규모 맥주 축제를 통해 소비자들에게 특별한 브랜드 경험을 제공하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하이트진로는 소비자와의 접점을 확대하면서 도 지역 사회와의 상생을 도모할 수 있는 다양한 현장 마케팅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2025 마곡 MCT 페스티벌’은 하이트진로를 비롯해 서울문화재단, R&D벨리 마곡, EBS 등 다양한 입주 기업 및 서울시, 강서구청이 협력해 기획한 음악·전시·체력·국제 컨퍼런스까지 아우르는 대규모 페스티벌이다.

이현진 기자

금호건설, 대구 숙원사업 ‘조아~동명 광역도로 건설공사(2공구)’ 수주

대구광역시 북구 조아동~도남지구 3.5km 구간 시공…터널·교량 포함 광역도로망 구축

경북 북부권 교통난 해소 및 대구경북 신공항 연계 핵심 간선도로 역할 기대

금호건설(대표이사 조완석)은 대구광역시 도시건설본부가 발주한 ‘조아~동명 광역도로 건설공사(2공구)’를 수주했다고 11일 밝혔다.

‘조아~동명 광역도로 건설공사’는 대구광역시 북구 조아동 오봉로에서 도남공공주택지구를 거쳐 경상북도 칠곡군 국지도 79호선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7.97km 신설 도로 사업이다. 금호건설은 이 가운데 2공구인 조아동~도남지구 구간을 맡아 공사를 수행한다.

금호건설은 이번 공사에서 터널 2개소, 교량 3개소를 포함하는 3.5km의 왕복 4차선 도로를 건설한다. 총 사업비는 약 630억원으로, 금호건설이 지분 71%를 보유한 주관사로 시공을 맡고, 서한이 29% 지분으로 공동 참여한다. 공사 기간은 60개월이다.

대구광역시의 숙원사업인 ‘조아~동명 광역도로 건설공사’는 총 연장 7.9km, 폭 20m, 왕복 4차로 규모로 건설된다.

공사구간은 ▲1공구(1.7km, 침산동~조아동),



▲2공구(3.5km, 조아동~도남공공주택지구), ▲3공구(2.7km, 도남공공주택지구~칠곡 동명면)로 나뉜다. 전체 구간에는 교차로 6곳과 터널 3곳이 설치되며, 본선 제한속도는 시속 80km, 연결도로는 40km로 계획됐다.

이번 사업이 완료되면 대구 북부권과 군위·안동 등 경북 북부 지역을 연결하는 광역도로망이 구축돼 지역 간 접근성 개선과 교통 정체 해소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또한 향후 대구경북 신공항을 연결하는 주요 연계 도로로서의 기능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금호건설 관계자는 “이번 공사를 통해 대구와 경북 북부권을 연결하는 핵심 교통망을 구축하고, 대구 북부권 교통난 해소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축적된 시공 경험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안전하고 품질 높은 인프라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심규영 기자

KB스타뱅킹에서 등기우편·내용증명도 확인하세요

우편물 분실이나 주소 변경으로 인한 불편 없이 KB스타뱅킹으로 안전하게 열람 가능해져

종이 없는 모바일 전자고지로 본격 전환, 약 600여 그루의 나무를 지키는 효과로 ESG경영 실천



KB국민은행(은행장 이환주)은 등기우편이나 배달증명 등 종이우편으로 발송하던 안내문을 KB스타뱅킹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이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ICT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로 전자문서법상 효력을 국내 최초로 인정받은 결과다.

이에 따라 고객은 종이 우편 분실이나 주소 변경으로 인한 불편 없이, 언제 어디서나 안전하게 안내

문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문자나 알림톡에 따른 스미싱 위험 없이, 종이 서류를 따로 보관하지 않아도 앱에서 즉시 열람 가능하며, 긴급한 안내사항도 실시간으로 전달 받을 수 있다.

KB국민은행은 그동안 제3의 기관의 전자문서만 유효할 수 있었으나, 이번 특례로 은행이 자체적으로 발송하는 금융상품 및 전자금융 거래 관련 안내문서도 법적 효력을 인정받아 직접 발송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종이 없는 모바일 전자고지로 전환함으로써 종이 사용을 줄이고 ESG 경영 실천에도 앞장 서게 되며, 이는 약 600여 그루의 나무를 보호하는 효과와 같다.

아울러, KB국민은행은 국제청, 한국주택금융공사 등 공공기관에서 발송하는 안내문도 KB스타뱅킹 전자문서로 통지하고 있다.

연말까지 지방세 고지서도 KB스타뱅킹 앱에서 확인과 납부가 동시에 가능하도록 선보일 예정이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은행에서 발송하는 중요한 안내문을 고객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받아볼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일상과 금융을 연결하는 생활금융플랫폼으로 발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이승원 기자